

# 드라마 <연인> 만주어 대사의 극적 기능과 의의

Dramatic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Manchurian lines in the drama <Dearest>

김경나\*\*

**국문요약** 드라마 <연인>은 로맨스를 넘어 전쟁을 겪어내는 민중들과 이민족, 왕실과 사대부, 경계에 있던 사람들, 당시 여성들의 지위와 유교사상으로 인해 강요된 절(節)이라는 주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이야기이다. 오랑캐라는 존재를 전면 등장시켜 주인공인 길채와 장현이 각각 칸 앞에 대면하고, 전쟁과 정치 속에 휘말리는 가운데에서도 '살아서 좋았다'라는 주제와 생존의 문제를 철학적 스토리텔링의 뼈대 위에 드러낸다.

드라마 <연인>은 실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636년부터 효종 10년 1959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여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하고, 궁중암투보다는 민중들과 포로의 관점에서 서사가 전개되기에 기존 콘텐츠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입장에서 만주어 대사의 자문 과정을 소개하고, <연인>에서 만주어 대사가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해결에 가능한 장면들을 살펴보았다. <연인>에서 만주어 장치는 첫째, 언어능력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서사적 갈등의 강화, 둘째, 우월적인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 부각, 셋째, 만주어 구사를 통해 언어의 친교적 기능을 활용한 전략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드라마 <연인>은 적지 않은 분량에 소위 오랑캐라 불리는 등장인물들이 만주어로 연기하며 이질적인 민족의 느낌을 구현해냈다. 드라마 속 청나라 시대 만주사람들이 어떠한 복색과 언어를 사용했는지와 시청자들에게 오랑캐가 구사하는 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만주어라는 것을 알린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핵심어** 드라마 <연인>, 만주어, 오랑캐, 역사드라마, 만주어 대사, 외국어 대사

- 차례**
1. 머리말
  2. <연인>의 만주어와 미술 및 소품, 자장가 고증
  3. <연인>의 만주어 : 오랑캐와 변경인
  4. <연인>의 만주어 대사의 극적 기능
  5. 맺음말

## 1. 머리말

드라마 <연인>의 주인공 길채와 장현은 병자호란과 그 후 포로 송환 과정, 인조의 정치와 소현세자의 죽음 등 당시 시대의 중심에서 파란만장한 역경과 사랑을 정면으로 겪어낸다. <연인>에서는 흥타이지와 용골대 등 실존했던 만주인은 물론 극 중 심양 배경 분량에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만주어로 연기하는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 방대한 양의 만주어 대사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작품은 드라마 <연인>이 처음이다.

이 글에서는 드라마 제작 구성원으로서 만주어 대사를

\* 이 논문은 국민대학교 만주연구소 창립기념학술대회 "오랑캐의 탄생: 드라마 <연인>으로 보는 조선과 만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연구』에 수록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연구교수

고증하고 자문·교육한 과정을 소개하고, <연인>에서 만주인 캐릭터와 만주어를 구사하는 조선인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연인>에서 만주어 대사가 극 중 긴장과 갈등 조성, 해결을 끌어낸 장면들을 분석하여 극적 기능과 의의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드라마 <연인>에서 만주어 대사로 드러내는 역사적 맥락과 시대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만 드라마에 사용된 만주어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분석이나 영상문학적 논의를 하는 것은 분량과 해석 범주를 뛰어넘는 일이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드라마 <연인>의 제작에 참여한 입장에서 바라본 만주어 대사 고증의 단계와 만주어 대사가 끼친 드라마 속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인>의 만주어와 미술 및 소품, 자장가 고증

2023년 <연인>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병자호란과 전쟁 이후의 민중들의 삶, 청으로 끌려간 포로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 환향녀와 정절,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대의와 모순, 성별을 뛰어넘은 사랑, 야만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오랑캐를 표현한 스토리였다는 점에서 큰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주는 역사드라마라 생각한다.<sup>1</sup>

2011년 영화 <최종병기 활>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신궁 남이가 청나라 정예부대와 싸워 누이를 구하는 이야기로 748만 관객을 모았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나라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모두 만주어로 고증·번역하여

작업했고, 청군 배역을 맡은 배우들 또한 만주어로 연기했다.<sup>2</sup> 2010년 이전의 조선시대 배경 영화나 역사드라마에서 소위 ‘청나라 사신’이나 ‘오랑캐군’으로 등장하는 배역들은 극 중에서 한국어로 연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간혹 중국어를 사용해왔었는데, <최종병기 활>의 흥행 이후 미디어에서 청나라 사신이나 오랑캐가 등장할 때는 만주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방송 업계에 퍼지면서 역사드라마에서 만주어의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해왔다. 국내에서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 중 만주어가 사용된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드라마와 영화 중 만주어 대사가 사용된 작품

구분	작품명	방영연도
영화	<최종병기 활>	2011
JTBC 드라마	<꽃들의 전쟁>	2013
tvN 드라마	<삼총사>	2014
KBS 드라마	<왕의 얼굴>	2014
MBC 드라마	<화정>	2015
영화	<남한산성>	2017
JTBC 드라마	<나의 나라>	2019
영화	<검객>	2020
Netflix 드라마	<킹덤: 아신전>	2021
영화	<올빼미>	2022
Netflix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	2023
MBC 드라마	<연인>	2023
tvN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2024

2010년대 이후 국내 역사드라마와 영화에 나타난 조선시대 청과의 대립 배경에서 오랑캐가 구현하는 만주어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소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미디어에서 인조 재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관심을 받는 것은 그대로의 역사를 넘어 과거의 시간이 현재와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해석을 접하기 때문이다.<sup>3</sup> 지난 10여 년간

1 드라마 <연인>은 2023년 MBC 연기대상 올해의 드라마상, 제36회 그리메상 대상, 2023 한국방송비평상 드라마 부문 올해의 드라마, 제36회 한국PD대상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하며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작품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

2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청의 명장 주신타로 연기했던 배우 류승룡은 만주어 연기로 32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3 기록된 역사든,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든, 상상으로서의 역사든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역사드라마는 과거의 시공간과 있었음직한 사실에

역사드라마에서 북아시아 이민족 등장 인물의 언어로 만주어, 몽골어가 쓰여왔으나 지상과 드라마에서 <연인>에서만 큼 만주어가 극의 중심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드라마 <연인>에서 표현된 만주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문을 진행했다. 사어(死語)에 가까운 만주어의 발음 고증은 조선시대 역학서(譯學書)인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sup>4</sup>, 삼역총해(三譯總解)<sup>5</sup>, 동문유해(同文類解)<sup>6</sup>에 수록된 한글 전사를 바탕으로 했고, 아울러 이훈의 만한사전(滿韓辭典)<sup>7</sup>을 참고했다. 만주어의 문법을 지켜 재현했지만 17~18세기 배경의 만주어를 고증했기에 현대 일부 만주족이나 시버족이 구사하는 언어와는 차이가 있다.



〈사진 1〉 조선시대 역학서(譯學書)인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의 첫 부분

만주어를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만주어 기초와 만주문자에 대한 개괄을 교육하지만, 배우들이 모두 만주문자를 기초부터 모두 학습해서 암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나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만주어 대사는 한글 발음으로 가장 가깝게 적어 대본에 첨부하고, 캐릭터마다의 억양과 톤은 개인 지도를 통해 배우와 의논하여 잡았다.

특히 드라마의 만주인 중 실존 인물로 비중있게 그려지는 홍타이지와 용골대 배역의 만주어 대사에 공을 들였다. <연인>은 시대적 배경이 병자호란과 전란 이후를 아우르는 드라마이기에 역사 속 인물이자 중원을 평정했던 홍타이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의 설득력을 뒷받침한다고 제작진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연인>의 홍타이지는 극 중 딸인 각화에게 세상을 다 내어줄 수 있다고 자식사랑을 표하면서도 포로사냥을 일삼는 각화에게 민심을 잃으면 안된다고 조언하며, 최명길을 비롯한 조선의 사대부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중원을 차지하면 청나라도 저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의 미디어에서 조선 정벌만을 목표로하는 위압적인 홍타이지와는 차별성을 가진 전략적인 황제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 청의 편견과 황제의 복식, 실내 미술과 소도구 준비에 주의를 기울였고, 홍타이지 역 배우

대한 긴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양근애,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2020, 125쪽.

4 청어 역관들의 양성 및 역과시용으로 1704년에 간행한 교재. 현존본은 1765년(영조 41) 당시 함흥역학(咸興譯學)이던 김진하(金振夏)가 수정하여 기영(箕營: 지금의 평양)에서 간행한 중간본이다. 본래 한어(漢語: 중국어)로 기술된 『노걸대』를 만주어로 번역한 책이다. 각 행의 좌측에 만주문자로 쓰고 우측에 만주어음을 한글로 전사하였으며, 한 문장 혹은 한 구절이 끝나면 국역(國譯)을 붙여놓은 형태로서, 사역원 간행 외국어 회화학습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5 삼역총해(三譯總解), 사역원에서 청어 학습 및 청학과시용으로 1774년에 간행한 교재인 청어학습서로,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중간삼역총해』만 볼 수 있다. 『중간삼역총해』는 검찰관 김진하(金振夏)·고사언(高師彦)이 초간본을 수정하고 서사관(書寫官) 장재성(張在成)이 썼다. 만문(滿文) 『삼국지』 가운데 10회본을 가려 뽑아 만주어음을 한글로 전사하고, 번역을 붙였다. 『삼역총해』의 저본은 1650년에 24권으로 각본(刻本)된 만문(滿文) 『삼국지』로 추정된다.

6 1748년(영조 24) 현문항(玄文恒)이 편찬한 만주어 어휘집. 청어역관(淸語譯官: 만주어 통역관)들의 학습용으로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되었다. 편제는 어휘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상권에는 천문(天文)·시령(時令)·지리(地理)·인륜(人倫)·인품(人品) 등 26류(類)에 2,448개, 하권에는 전농(田農)·미곡(米穀)·채소(菜蔬)·과품(果品)·질병(疾病) 등 29류에 2,352개로 총 55류에 4,800개의 어휘 항목들이 각면 10행, 각행 상·하 2개씩 수록되어 있다. 끝에 부록으로 「어록해(語錄解)」가 붙어 있다. 각 어휘 항목은 중국어·한국어·만주어 순서로, 중국어는 한자로, 우리말은 한글로 기술되었고, 중국어와 우리말이 동일한 경우에 우리말 어휘를 중국어 한자 수호에 해당하는 짧은 선으로 대치하였다.

7 이훈 편저, 『만한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김준원은 위엄있으면서도 지적인 군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만주어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용골대는 <연인>에서 장현과 소현세자, 인조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자 복합적인 캐릭터였고, 만주어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실제 만주 장군처럼 보일 수 있는 대사톤을 추구했다. 때문에 용골대 배역을 맡은 배우 최영우는 극 중 만주어를 구사하는 다른 역할의 배우들보다 더 성대를 굵고 거센소리 발음을 강하게 표현했다. 아울러 각화의 만주어는 자연스럽게 황녀의 신분이기애 느리면서도 무게있는 톤으로 잡아 신분의 위엄이 돋보이도록 했다.

만주인 배역으로 나오는 홍타이지, 용골대, 각화, 마부대, 맹탄, 양쓰, 윤친왕, 화유, 라이, 조선-여진 혼혈인 랑음, 부후치의 경우 대사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억양처럼 보이도록 발음에 호흡을 보다 많이 품도록 의논했고, 장현, 정명수, 들분, 최도리, 박난영, 길채는 조선사람이 학습한 만주어이기애 한국어 대사에 만주어 발음을 엮어서 구사하는 분위기로 잡았다.

<연인>의 홍타이지 편전, 칙서, 심양 포로스장의 배경에 등장하는 만주어는 미술팀에 만주어 글자 부분을 파일로 보내 작업하거나 직접 소품에 글씨를 적었다. 만주어 소품의 등장은 당시 배경에서 한자나 언문으로 적는 서찰의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인 장치였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초반 2부 32썩 홍타이지가 누르하치의 화상 아래 향을 피우며 처음 등장하는 장면 의상과 미술은 청이 한반도를 침략하는 야욕과 함께 전략적인 칸의 모습을 임팩트있게 표현한 장면이다. 홍타이지 편전에 현판(懸板)이나 주련(柱聯)으로 사용할 문자에 대해 한자로만 적는 방



<사진 2> 드라마 <연인> 청나라 심양궁 편전의 현판과 누르하치의 초상

법, 한자와 만주어 모두 적는 방법, 만주어로만 적는 방법 등을 미술·소품·연출팀과 다양하게 의논했고 만주어가 이민족으로서의 만주를 드러내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주련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 구절 인용이나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홍타이지의 생전 만주어 존호 'Gosin Onco Hūwaliyasun Enduringge Han' (弘德彰武皇帝, 관대하고 조화로우며 성스러운 칸)가 칸의 위엄을 표현하는데 직관적이라 판단했다.

드라마에서 만고절창(萬古絶唱)으로 나오는 랑음이 6부 6썩에서 만주어로 부른 자장가<sup>8</sup>가 방영 후 화제를 모았

8 Bebu mudan, 민요로 전승되어 온 만주 자장가로 가사의 만주어 라틴 전사와 그 뜻은 다음과 같다.  
Yo yo jo bebu jo yo yo jo yo yo lei bebu jo  
Eniye boobai hasa amgacina Hūdun i mutu banjija ningge absi sain jiya  
Narhūn ser sere edun daha Gasha feye de hūdun i bederene  
Mini boobai hasa amgacina Si ere songgotu haha jui

다. 지금까지 전하는 다양한 만주족 자장가 중 가장 서정적인 선율의 자장가를 골랐고, 여러 버전 중 하나를 김수한 음악감독이 편곡해서 제작했다.

6부 4썩에서 량음은 이 만주족 자장가를 부르며 오랑캐들의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장현에게 내비친다. 량음과 장현이 조선 사신단 행렬에 함께 길을 가다가 쿠틀리로 위장해 청의 노진으로 잠입하여 병사들과 만주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부상입고 지친 청군병사들 사이에서 만주 자장가를 불러 흥타이지 앞에까지 가게된다. 장현과 량음이 몽골대에게 고문을 당하지만 만주 자장가 덕분에 적진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청군의 정보를 최명길과 소현세자에게 건낼 수 있게 된다.

한편 6부 7썩에서 서정적인 자장가의 선율을 듣고 손상단을 맞추며 훌쩍거리는 만주 군사들의 장면은 보통 역사드라마 속에서 조선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전형적인 오랑캐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도 노래를 듣고 감상에 젖는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만주 자장가를 미끼로 청군과 칸의 마음을 흔들며 극의 긴장을 이끌어내는 장면은 8부 57썩에서 다시 등장한다. 정뇌경이 정명수의 착복을 고발한 건으로 정뇌경이 처형되고 장현이 감옥에 갇히자 량음이 장현을 구하고자 흥타이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심양 황궁 정원 일각에서 자장가를 부르는 장면이다.

### 3. <연인>의 만주어: 오랑캐와 변경인

드라마 <연인>은 만주어라는 언어적 장치를 이용해 시청자를 주인공 길채와 장현이 살았던 시대로 이끌며, 오랑캐가 조선인을 핍박하는 장면에 만주어와 몽골어를 사

용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과거 시대와 인물들에게 몰입하고 공감하게 했다. 또한 실제 병자호란과 소현세자의 심양행 및 그의 귀국 후 사망까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재구성한 것을 토대로 등장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엮어 방대한 이야기를 현실감 있는 영상 언어로 풀어냈다. 특히 <연인>에서 빈번히 사용된 만주어는 극 중 갈등과 위기를 구성하고 서사를 증폭시킴으로서 주인공인 길채와 장현이 사랑을 확인하고, 포로들을 속환시키는 장면에 기여했다.

극 중 2부 60썩에서 오랑캐 군사들의 첫 등장은 마부대를 필두로 말을 탄 기병들이 별판을 빠른 속도로 달려 진격하고, 그 아래 흥타이지의 만주어 나레이션이 나오는 장면이다(<사진 3> 참조). 송추와 이랑 부부의 회혼례가 치러지는 능군리 사람들의 행복한 잔치 분위기와 청군의 만주어 대사가 대비되어 전쟁의 시작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사진 3> 드라마 <연인> 2부 60썩에서 등장하는 흥타이지와 청군의 장면

4부에서 능군리로 쳐들어온 오랑캐는 만주군이 아닌 몽골군병들이고, 송추와 이랑 노부부는 이들에게 죽음을 맞게된다. 또한 은애의 저고리를 뜯어내고 어깨를 드러나게 하는 이도 몽골군이다. 드라마에서는 오랑캐에게 속살을 보인 것만으로도 정절을 잃은 것이라 여기고 은애는 죄

여여조 여여러이 버부 조×2 / 엄마의 보물 어서 잠들자 얼른 자라서 멋있어지거라  
살랑살랑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네 새도 동지로 서둘러 돌아가네 나의 보물 빨리 잠들자 이 울보 아가야

책감을 가지는데, 여기서 오랑캐가 몽골병인지 만주의 청병인지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반면 4부 18편에서 량음이 후금 오랑캐들 중 몽골병도 섞여있다는 말을 하자, 장현은 만주족과 한족은 칸의 엄한 군기를 따르지만 몽골병들은 재물과 여자를 목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대사를 말한다. 이 대목에서 구 zam은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

4부 S#18. 암자 마당 / 낮<sup>9</sup>

장현: 어찌 되었든 저 위에서 싸우고 결판을 내야 할 터인데, 이 아래로 내려오진 않겠지.

량음: 그런데 이번에 후금 오랑캐들 중엔 몽골병도 섞여 있다더군.

장현: (순간, 멍칫)

장현, 마루에서 내려와 두어 걸음 걸어 마당 끝에 선다. 산등성이 넘어 이어진 길을 보는 장현.

단감을 한 입 베어 천천히 씹어 먹으며, 곰곰 생각에 잠긴다.

장현: 몽골병은 달라.

구 zam: 다르다니요? 뭐가요?

장현: 만주족과 한족은 칸의 엄한 군기를 따를 거야. 하지만 몽골병들은 이번 전쟁에 참전한 목적이 따로 있어.

량음: 그게 뭔데?

장현: 재물과... 여자!

1부 25편에서 연준이 임금을 지키려면 오랑캐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능군리 청년들에게 외치는 장면, 3부 34편에서 길채가 장현에게 전쟁이 무엇이 무섭냐고 반문하는 장면과 대비된다. 오랑캐를 본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적의 실체를 모르는 백성과 만주군과 몽골군을 구분하고 그들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인지하는 장현과 량음이 비교되는 부분이다.

황진영 작가가 4부의 몽골군과 그 이외 회차의 만주인들을 구분하여 서술한 것이 대본에서 드러나고, 필자도 몽골어 대사와 만주어 대사를 각각 별도로 자문했다. 드라마에서 장현의 대사로 만주군과 몽골군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만, 극 중 대부분 인물들과 시청자는 오랑캐로 묶어 인식하게 된다.

6부에 청군 노진으로 잠입한 량음과 장현은 용골대에 게 간자로 의심을 받는다. 청군 고신(拷訊) 막사에서 장현이 발톱을 뽑히는 고문을 당하는데 이때 량음은 손발이 묶여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용골대와 만주어로 대화한다.

6부 S#11. 청군진영 고신용 막사 / 낮<sup>10</sup> (대사 모두 만주어)

(중략) 용골대의 눈빛을 받은 부하들이 철퇴로 각자 장현과 량음을 내리치려 손을 치켜들자, 경악하여 외치는 량음.

량음: (사색이 되어 절규) 안돼!!

부하들: (철퇴 든 손을 멈추고 용골대 보며)

용골대: (량음 보더니 빙글... 미소) 너로군. (장현 보며) 이 놈을 잡아.

이윽고 부하들이 장현을 잡아 두 다리를 의자 다리에 각각 고정시키며 묶자, 장현과 량음,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데,

용골대: (량음 보며) 동무가 다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가 너이기에, 이제 니 눈앞에서 저자를 고문할 것이다.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저자의 발톱이 하나씩 뽑힐 게야.

량음: 장군!!!

장현: (역시 당황스럽고)

용골대: (배설.. 미소 지으며 부하들과 시선 교환) 봐. 이 놈이 더 절박하지. 내 눈은 진짜를 알아본다니까.

9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1, 김영사, 2023, 244쪽.

10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1, 김영사, 2023, 355~358쪽.

용골대, 일각에 놓인 의자를 끌어 장현과 량음 사이에 앉아 질문을 시작한다.

용골대: 다시 묻지. 넌 어디 출신이야?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지? 네게서 거짓이 보이면... 저 놈은 죽는다.

량음 ...!!!

용골대, 량음의 눈에서 일말의 거짓이라도 찾겠다는 듯 집요하게 보다가, 결국 피식... 웃는다.

용골대: 거짓말은 아니군. (곧 장현 허리춤의 모래병을 툭, 뜯어 챙기며) 좋아. 너희는 앞으로 폐하게 정성껏 노래를 올리거라. 폐하를 기쁘게 해드려야 해!

6부 S#13. 청군진영 고신용 막사/밤<sup>11</sup> (대사모두 만주어)

밤이 깊어가고, 장현의 양 발이 피투성이다. 장현, 거의 진이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고 량음도 울다 지쳐 낮이 나갔는데.

량음: 제 어미는 회령에서 유목을 하던 여진인이고 아버지는 조선사람으로... 조선군의 토벌로 부모를 모두 잃고 은산 관아 공노가 되었는데... (중략)

용골대: 노래를 꽤 잘하더군.

량음: 어미에게 여진의 노래들을 몇 소절 배운 것뿐입니다.

용골대: 현대 낮엔 왜 갑자기 노래를 불렀지? 폐하께 들리라고?

량음: 아닙니다! 폐하께서 들으실 줄은 꿈에도...(하는데)

용골대: 그래... 허면 넌 어디 출신이야?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지?

량음: (울컥) 같은 얘기를 몇 번 물으십니까!!

부하들: (장현의 다른 발톱을 뽑으려 하자)

량음: (발악한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날 죽여!!! (그러다 눈빛 매서워지며 제 혀를 깨물려고 하면)

용골대: (턱, 얼굴을 잡아 막는데)

량음: (눈을 부릅뜨고 절규한다) 내가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다. 폐하께서 고향의 소리를 찾으시면 그땐 어찌 할 것이오!!!

용골대가 량음의 눈을 깊게 본다. 량음, 지지 않고 같이 보고. 잠시 동안 이어지는 두 사람의 눈싸움.

량음은 조선인 아버지와 여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자 변경인이다. 6부 11썩과 13썩에서는 고문과 협박으로 집요하게 상대를 파고드는 용골대의 성격과 장현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 만주어로 외치는 량음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장현을 연모하는 량음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한편 <연인>의 용골대<sup>12</sup>는 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장현을 위기에 빠트리기도 하고 그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며, 드라마 후반부에는 청에 끌려간 포로를 풀어주고 장현의 목숨을 살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조정에서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고민, 때로는 사사로운 정에 끌리기도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단순한 악인으로서의 오랑캐가 아닌 입체적인 용골대의 모습을 나타냈다.<sup>13</sup>

11~12부에는 오랑캐 장군이나 청군 병사들이 아닌 심양 황궁의 만주인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질투에 불타 시녀들을 마음대로 잔인하게 고문하는 친왕의 애첩 화유, 진상품으로서 포로에 흡이 가지 않기를 바라며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양쓰, 각화의 충족으로 사람의 뒤를 캐고 채찍질도 서슴치 않는 라이, 친왕들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장

12 드라마 <연인> 방영 이전 인조 재위시대를 다룬 작품에서 <최종병기활>, <꽃들의 전쟁>, <삼총사>, <화정>, <남한산성>, <울메미> 등에서 병자호란과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내용 전개에 용골대(만주어: 타타라 잉골다이)가 만주어로 대사를 구사하며 극의 사실성을 더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등장한 용골대는 잠시 등장하여 최명길에게 훙타이지의 명을 알리거나 조선에 청의 칙서를 전달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13 <연인>에서 용골대를 연기한 배우 최영우는 2023 MBC 연기대상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만주어 연기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

11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1, 김영사, 2023, 358~359쪽.



〈사진 4〉 드라마 〈연인〉 6부 11회에서 용골대가량을 고문하는 장면

현에게 호의적인 중간관리자 맹탄, 호색한이면서도 흥타이지의 권력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윤친왕 등 다양한 만주 황실 내부인의 캐릭터가 모두 만주어를 사용하여 극중 배경 장소가 심양임을 환기시킨다.

12부에서는 조선에서 포로로 끌려온 후 청나라 황궁의 시녀가 된 들분이 납치되어 포로로 청나라 황실까지 온 길채에게 일부러 틀린 만주어를 알려주어 길채가 곤경에 빠지는 내용이 이어진다. 만주어를 모르는 길채는 본인이 포로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극 중에서는 잠자리 시중을 원한다는 만주어 대사를 윤친왕 앞에서 하게 된다. 이 광경을 본 윤친왕의 애첩 화유가 길채의 손가락을 작두에 넣고 자르려는 것을 시녀 양쓰가 말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씬은 모두 만주어로 진행된다.

12부 S#43. 윤친왕 처소 정원 / 낮<sup>14</sup>

윤친왕이 화유와 맹탄, 최도리 등을 대동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윤친왕의 시선이 저만치에 머문다. 보면, 후궁 처소를 청소하는 시녀들 중, 눈에 띄게 아름다운 길채.

윤친왕의 눈빛에 욕정이 차오르는데, 윤친왕이 온 것을 본 길채, 달려가 부복한다.

윤친왕 등: ...?!!

길채: (양쓰 뒤의 들분을 잠시 보면)

들분: (긴장하고)

길채: (곧 결심한 얼굴 되어 입 여는데 뜻밖에 청나라 말이다.)

왕야를 피시게 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간절하게 윤친왕을 보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길채.

헌데 윤친왕, 길채의 말을 들곤 흐뭇한 미소만 짓고, 화유는 더욱 이글거리며 노려본다. 길채, 잘 되어가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데, (중략)

본인의 의지와 상반된 만주어 표현으로 인해 길채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몸에 흉도 없고 예뻐서 윤친왕의 잠자리 시중을 들면 총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양쓰의 말을 듣고 화병을 깨서 스스로 이마를 그어 상처를 내는 길채는 흉이 생겼기에 잠자리 시중을 들 시녀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포로경매시장으로 팔려가게 된다. 이때 길채 스스로 만든 이마의 흉터는 드라마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연인〉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피폐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춘다. 이전의 역사드라마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적지 않게 그려졌지만, 〈연인〉 12부 21회 심양 포로시장 곳곳에서 처참한 조선인 포로들의 광경을 묘사한다. 딸을 구하고자 속환가를 어렵게 마련해온 노인에게 만주

14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2, 김영사, 2023, 357~358쪽.

인 거간꾼이 더 비싼 값을 요구하자 딸이 거간꾼의 허리에 찬 검을 빼어 자신의 배를 찔러버리면서 가족들을 위해 속환가를 도로 가져가라는 대사를 하고, 단 위에 포로를 올려놓고 흥정하는 인신매매 거간꾼 부후치는 만주어로 경매를 진행한다. 또한 포로가 된 한석의 발뒤꿈치가 잘렸어도 손재주가 좋으니 상관없다는 포로구매인도 만주어를 구사한다.

13부 65썬은 심양 포로시장의 상인 부후치가 길채를 경매단에 올리고 길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만주어로 호가를 부르는 상황으로, 참혹한 모습의 길채와 그 광경을 본 장현이 절규하는 장면이다. 이 때의 만주어 장치는 주인공들이 처한 환경이 조선인에게 낯선 심양임을 인지하게 하고, 포로 인신매매의 잔혹성을 증폭시킨다.

포로시장에서 경매꾼으로 조선말과 만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인물 부후치는 조선과 만주의 혼혈인이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며 경매로 돈만을 쫓는 인물이면서도, 구원무가 자신을 구하러 와줄거라 기다리는 길채에게 ‘자식은 부모를 찾으러 오고, 부모도 자식을 찾으러 오고, 아내도 서방을 찾으러 오지만... 서방이 아내를 찾으러 온 적은 없어.’라고 단념하라 읊조린다. 부후치의 이 대사는 12부 64썬과 13부 4썬에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조선시대 여성 포로와 환향녀가 겪었을 상황과 당시 시대배경을 응집하여 조명한다.

#### 4. <연인>의 만주어 대사의 극적 기능

<연인>에서 만주어 대사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능력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서사적 갈등의 강화 기능, 둘째, 우월적인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 부각 기능, 셋째, 만주어 구사를 통해 언어의 친교적 기능을 활용한 전략적 기능이다. 만주어 대사의 다양한 기능은 남녀주인공 모두가 심양

으로 가게되는 <연인>의 11부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진다.

첫째 언어능력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갈등의 강화 기능은 14부 18썬의 각화와 길채가 대면하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만주어와 조선말에 대한 인지에 따라 주인공의 상황이 비틀어지는 상황은 심양에서 황녀인 각화와 시녀 신분이 된 길채의 모습, 장현에 대한 길채의 사랑과 각화의 집착이 만주어-한국어 대사와 함께 대비된다.

##### 14부 S#18. 각화 처소 침전 / 낮<sup>15</sup>

길채가 각화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잠시 후, 라이가 들분을 대동하고 들어온다.

라이: (만주어) 왕부에서 양쪽 말을 제일 잘하는 시녀를 데려왔습니다.

들분: (만주어) 황녀를 뵈웁니다... (했다가 길채를 보고 놀라고)

길채: ...!!

각화: (만주어) 그래. 너는 내 뜻을 저 계집에게 잘 전해야 한다.

이제 길채, 다시 각화의 다리를 주무르면,

각화: (만주어) 이리저리 팔려 다녔다니, 고초가 많았겠구나.

들분: 그간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는구나.

길채: (설핏 보더니) 그래. 고생 많았다.

들분: (길채가 반말하자 당황하면)

길채: (들분 보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어때?

각화: (길채의 조선말을 모두 알아듣고 피실... 묘한 미소)

들분: (대충 둘러서 번역해준다) 예. 큰 고생을 했다 합니다.

각화: (만주어) 조선 여인들은 정절을 중하게 여겨서 포로로 잡히면 목숨도 끊는다던데, 너는 왜 안 죽었지? 용기가 없었나?

들분: 왜 포로로 잡혔는데도... 안 죽었는지 물어서.

15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2, 김영사, 2023, 457~458쪽.

길채: 내가 죽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야.  
 들분: (피실... 웃음이 나오려는 걸 꼭 참고)  
 길채: (문득 장현을 떠올린다) 날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살거야.  
 만약 니가 날 죽이면... (각화 보곤 미소) 너도 가만 안둘거야.  
 각화: (뒤편 말했는지 궁금한 척 들분 보며)  
 들분: (둘러대느라 더듬...)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했으니, 전하께서 거두어주시니 참 기쁘습니다.  
 (하는데)  
 각화: (길채에게 시선 둔 채 조선말) 입이 거칠군.  
 길채: ...!!  
 들분: (역시 놀라 보며)

라이, 성큼 다가가 채찍으로 길채를 척척, 내리치기 시작하고, 길채, 입술을 깨물며 매질을 감내한다.  
 들분, 이를 보며 안타까워지는데.

길채의 생존에 대한 의지와 기지, 약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은 드라마에서 반복되어 표현되고,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 도움을 받게 된다.

11부에서 길채는 탈출 뒤 포로로 다시 잡혀가는 대장장이 덕출의 손자인 어린 다짐이를 본인의 은자를 내어 빼내는데, 다짐이를 구해오는 길에 맹탄과 최도리에 의해 청으로 납치되어 끌려가게 된다. 길채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량음에게 알려주는 이는 다짐이다.

들분이 길채에게 잘못된 만주어를 가르쳐주어 길채를 곤경에 빠트리니, 길채는 급기야 포로시장 경매장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인 다짐이를 길채가 구했다는 것을 알게된 들분은 길채가 다시 황궁으로 돌아왔을 때 홍타이지에게 고할 만주어를 가르쳐주고, 길채가 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짐이의 안부를 부탁하며 여비를 챙겨준다. 후에 조선에 돌아간 길채는 원무와 이혼을 겪으면서도 다짐이와 환향녀를 보살피고, 19부에서 속환된 들분은 다짐과

재회한다.

14부 33썩에서의 만주어 장치는 주인공이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극에 반전을 꾀하고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녀가 되어 칸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길채는 홍타이지 앞에서 억지 포로가 되어 끌려온 자들의 처지와 고통스러운 학대에 대해 긴 만주어 대사로 고한다(〈사진 5〉 참조). 이 장면에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길채의 성격이 극적으로 표현된다.

14부 S#33. 홍타이지 편전 / 낮<sup>16</sup> (대사 모두 만주어)

각화가 시녀에게 찻잔을 받아 홍타이지에게 올리고, 홍타이지, 차를 마시는 사이, 각화가 저편 라이에게 눈짓하면, 라이가 곧 길채와 통역할 들분을 들인다. 두렵고 떨리는 얼굴로 들어온 길채.

길채: (홍타이지 앞에 바짝 부복하면)  
 홍타이지: 잠자리 시중을 거부하려 스스로 몸을 흉을 만들었다지?  
 길채: (뒤편 말하는 걸까? 잔뜩 긴장하고)  
 홍타이지: 하지만 나는... 조선 여인들이 정절을 지키는 것을 나쁘게 보진 않아. 조선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도 좋다. 일전에 보니 조선 신하들은 전쟁에 진 임금을 위해 제 머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더군. 내가 중원을 차지하면 내 백성들도 그런 점은 배워야 해... (하는데)  
 길채: (홍타이지가 말하는 사이 긴장한 마음을 다잡으며 저편 들분과 눈빛 나누더니 이윽고)  
 (만주어) 폐하를 뵈오니 참으로 광영이옵니다.

순간 놀라 보는 홍타이지와, 각화.

홍타이지: 우리말을 아느냐?

16 황진영, 『뭉치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2, 김영사, 2023, 471~473쪽.

길채: (떡엄떡엄 어수룩하지만 힘주어) 폐하께 말씀을 올리고자 만주어를 익혔나이다.

홍타이지: 내게 할 말이 있어서 우리말을 익혀? (미소)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

길채: 폐하! 소인은 포로가 아닙니다. 소인은 납치되었나이다.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각화: (순간 안색 변하고)

홍타이지: (역시 안색이 굳더니) 도망한 포로가 아님에도 납치되었다?

길채: 예, 폐하. 소인은 포로로 잡힌 적도, 포로된 몸으로 도망한 적도 없사온데, 조선에서 납치되어 끌려왔사옵니다. 저뿐 아니라, 억지 포로가 되어 끌려온 자들이 무수히 많사온데,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무슨수로 그 억울한 사정을 풀었겠나이까? 또한 심양에 끌려온 조선의 여자 포로들이 안주인들의 학대를 받아 손가락이 잘리고 화상을 입어, 그 고통스런 울음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나이다.

폐하! 폐하께오선 공명정대하신 분이오니 이 억울함이 하늘에 뻗쳐 폐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말을 마친 후, 온 몸을 떨며 긴장하는 길채.

각화, 당황하여 홍타이지 보고, 홍타이지의 안색도 굳어졌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이윽고,

홍타이지: 맹랑하군. 이제껏 많은 조선 여인을 봤지만, 우리말을 스스로 익혀 내게 말을 전한 여인은 없었어.

11부 33회에서 길채의 만주어 대사를 듣고 홍타이지는 자신에게 말을 전하고자 만주어를 익혀 말한 여인은 없었다며 놀라워하고, 이에 친왕들의 애첩이 조선인 포로들을 함부로 고문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물론 이는 인간적인 배려라기보다는 칸의 전리품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인 포로에 대한 황족들의 학대가 멈추게 된다.



〈사진 5〉 드라마 〈연인〉 11부 33회에서 만주어로 조선 포로들의 억울함을 홍타이지에게 고하는 길채

만주어 구사를 통해 언어의 친교적 기능을 활용한 전략성은 소현세자와 홍타이지의 대화장면에서 부각된다. 14부에서는 길채를 구하려는 장현의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던 소현세자와 강빈이 강화도에서 원손을 살린 사람이 길채임을 알게 되고, 곤경에 처한 길채를 구하고자 소현세자는 홍타이지에게 시녀 한 사람을 포상으로 원한다고 만주어로 대화한다. 이 부분에서 길채가 목숨을 걸고 원손을 구한 장면에 대한 복선 회수와 함께, 세자가 심양에서 만문(滿文)을 익히고<sup>17</sup> 칸과 잘 지낸다고 경계하는 인조의 발언이 소현세자의 만주어 대사로 증명되는 씬이라 볼 수 있다.

17 소현세자가 실제로 만주어를 잘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심양에서 8년 동안 지낸 시간을 미루어보아 만문과 만주어를 익혔을 가능성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다. 영화 〈올빼미〉 (2023)에서도 청 사신이 칸의 칙서를 가져와 편전에서 낭독하고, 소현세자에게 강제로 통역을 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 만주어로 낭독한 청 사신의 칙서를 소현세자가 조선말로 통역하는데, 모욕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인조의 얼굴이 마비되면서 극의 갈등이 전개된다.

14부 S#30. 청 황궁 편전 / 낮<sup>18</sup> (대사 모두 만주어)

편전에 마주한 홍타이지와 소현. 홍타이지 아래에 용골대가 섰고.

홍타이지: 이주의 쌀을 금주로 보내고, 의주의 쌀로 갚기로 하였다지? 경중명... 명에서 귀화한 자라 내내 의심했으나... 이제야 대청의 힘을 깨달은 모양이군... (만족스러워하면)

용골대: (크게 안도하고 기뻐하고)

홍타이지: 조선에서 제때에 군량의 일을 해낸 것을 치하하고 싶어.

이번 송산에서 가져온 전리품 중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 보게.

소현: 하오면 조선 포로 여인 중 하나를 상으로 주실 수 있겠나이까?

홍타이지: (씩 미소...) 이제 보니 세자도 사내로구만. 그래, 어떤 시녀를 포상으로 바라는가?

한편 10부에서 12부까지 각화와 장현이 마주치는 장면에서 둘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만주어로 대화하지만 13부 27편에서 각화의 신분이 황녀임이 드러난다. 13부 28편에서 각화와 장현은 만주어로 대화하다가 장현이 혼잣말로 하는 조선말 대사에 바로 각화가 조선말로 대응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갖고 싶은 것은 인간사냥을 해서라도 쟁취하려는 각화의 성격과 신분이 두드러진다.

13부 S#27. 윤친왕 처소일각 / 낮<sup>19</sup>

(중략) 황녀가 길을 지나감을 알리는 환관의 음성. 장현과 역관1, 가장자리에 서서 읊하여 황녀가 지나기를 기다리는데, 어쩐지 황녀 행렬이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더니, 가마에서 황녀가 내리는 기척.

각화: (만주어) 고개를 들어.

장현: (어쩐지 익숙한 음성. 의아해하며 고개 들면)

각화: (만주어) 이제 내 얼굴을 봤으니, 네 놈 정체도 말해주련?

장현: ...?!!

13부 S#28. 심양 각화 처소 정원 / 낮<sup>20</sup>

산책하는 장현과 각화. 두 사람 뒤로 열 보름 떨어진 뒤 따라오는 각화의 시녀 라이와 다른 시녀들.

장현: (만주어) 허면... 그간 복면을 쓰고 포로들을 잡은 것이...

각화: (만주어) 그래, 나야.

장현: ...!!

각화: (만주어) (피식) 이제 말해봐. 포로를 잡아서 뭘 했지?

장현: (만주어) 용골대 장군께서 제게 도망한 조선 포로 잡는 일을 맡기시어 장군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작게 조선말로 혼잣말) 성가시게 됐구만.

각화: (조선말) 성가셔? 이 정도로? 진짜 성가시게 해줄까?

장현: (갑작스레 조선말을 하는 각화에 놀라서 보면)

각화: (조선말) 왜, 놀랐나? 난 조선말도,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

장현: (...?!!)

각화: (조선말) 한 번만 더 내게 거짓말을 하면... 네 놈 혀를 잘라버리겠어.

그러니 말해. 포로를 잡아서 뭘 했지?

한편 각화가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설정이었기에 서로의 신분을 인지한 후의 각화와 장현의 대화는 한국어 대사로 진행되었으나, 14부 45편에서 장현이 각화에게 길채를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은 필자의 요청으로 만주어로 연기했다. 길채의 생사여탈을 황녀인 각화의 위치에 기대어 간청하는 씬이었기에 장현이 무릎을 꿇고 만주어로

18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2, 김영사, 2023, 470쪽.

19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2, 김영사, 2023, 402~404쪽.

20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2, 김영사, 2023, 404~405쪽.

대사를 하는 것이 보다 간절해 보일 것이라 판단해서였다 ((사진 6)참조). 이 부분은 만주어 구사를 통해 언어의 친교 적 기능을 활용한 전략성이 두드러지는 장면이다.

14부 S#45. 각화 침전 / 낮<sup>21</sup>

각화가 느긋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 곧, 장현이 성큼 들어오면, 시종들이 장현을 끌어내려 하는데, 각화, 손을 들어 시종들을 물린다.

장현: (만주어) (털썩 무릎을 꿇고 부복하며) 전하, 소인을 대신 별주소서. 그 여인 대신 발축을 꺾으려면 꺾을 것이고, 그 여인 대신 종이 되려면 될 것이니, 부디 그 여인을...

각화: (가만 보고)

장현: (만주어)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각화: (만주어) (라이 보며) 그 여자가... 살아있던가?

장현: (만주어) (사색 되어) 전하!! (하는데)

각화: (조선말) 내 청을 들어주면, 그 여자가 어딴지 알려줄 수도 있지. 일전에 나랑 사냥을 나갔을 때 기억나? (한 순간, 조금은 순박한 표정 되더니) 그 날... 무척 좋았어. 한 번 더, 나와 사냥을 나가주련?

장현: (조선말) (의외다) 그 뿐... 입니까?

각화: (조선말) (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이번 사냥은 목숨을 건 내기 사냥이야. 그래도.. 하겠어?

장현: ...?!!

이렇듯 장현은 지고지순하게 길채를 사랑하는 인물이자, 만주어를 유창하게 하기에 청역관의 지위를 가지면서 몽골어와 명나라말까지 할 줄 아는 외국어 능력자로 그려진다. 장현이 만주어를 유창하게 하는 설정은 드라마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아울러 <연인>에 등장하는 모든 조선인 중 가장 정확하게 오랑캐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현에 대해 각화는 ‘조선 사람들은 둘



<사진 6> 드라마 <연인> 14부 45회에서 만주어로 각화에게 길채의 행방을 묻는 장현 중에 하난 줄 알았어. 우릴 오랑캐라며 무서워하거나,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헌데 넌 이상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라는 대사를 통해 장현이 오랑캐를 바라보는 시선을 말해준다.

8부 6회에서 소현세자와 빈궁의 가마, 수행원들과 포로들이 심양으로 향하는 들판에서 장현을 찾는 길채가 청병에게 잡히려는 순간 장현이 청병에게 ‘각화 이후에 사사로이 포로를 삼는 것은 폐하께서 금하셨습니다. 폐하의 명을 거스를 것인가?’라고 만주어로 말하며 길채를 구한다. 장현이 만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설정은 남자주인공의 명석함과 빠른 판단력을 가졌으며, 길채는 물론 조선 포로까지 구해내는 영웅적 기능을 응집하여 보여주는 장치로서 드라마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활용된다.<sup>22</sup>

11부에서 용골대가 조선 포로들의 발뒤꿈치를 잘라도 망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보고 장현은 서른 냥에 포로를

22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가적 명령을 위반하는 영웅 캐릭터는 사실 스테레오타입에 가깝지만 선명한 만큼 강렬한 흡인력이 있다. 정혜경, 「2010년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147쪽.

21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2, 김영사, 2023, 480~481쪽.

팔아줄 수 있다고 만주어로 대화하며 흥정한다. 사실 량음의 부탁으로 장현이 사비를 털어 조선 포로들을 대신 사서 구하는 장면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극의 마지막까지 장현은 양친을 비롯한 조선 포로들을 보호한다. 장현이 구한 조선 포로들은 청과 조선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18부 89썩, 92썩에서 장현의 전 재산과 강빈이 생전 모은 재산을 청에 모두 내어주고 조선 땅에 걸어서 돌아오게 된다.

18부 S#89. 들관 일각 / 낮<sup>23</sup> (대사 모두 만주어)

장현과 마주한 각화, 각화 뒤편에 선 용골대. 수레꾼이 바리합 서너 꺾이 든 수레를 각화와 용골대 앞에 세우고. 용골대가 함을 열면, 빛이 반사되어 용골대의 얼굴에 번들해진다. 보면, 꺾이 가득한 은자들.

장현: 저의 전 재산과, 세자빈께서 모은 재산을 전부... 드립니다.

용골대: (은덩이 집으려는데)

장현: (턱, 잡으며) 단! 일전에 약조한대로, 모든 포로들은 청나라 호부에서 인정한 속환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로들은 강을 넘지 않고 당당히 육지길로 조선땅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 보장해 주신다면... 이 은자를 넘기겠습니다.

18부 89썩의 조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현의 대사는 모두 만주어로 표현된다. 장현이 청역관 신분을 이용해 심양에서는 남초(南草)와 인삼을 팔아 여각을 마련하여 돈을 벌고, 친왕들과 용골대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해주어 환심을 사는 수완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번 돈은 결국 극 후반에 조선 포로들을 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또한 양친과 영랑을 비롯해 장현이 조선으로 돌려보낸 조선 포로들은 다시 장현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선순환을 보

여준다.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는 소현세자가 역관 이장현을 가까이 두었고 유서를 장현에게 남겼다는 이유로 장현은 인조와 만해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18부에서 각화는 칙사의 역관 자리에 장현을 세우게 하고, 이장현이 죽거나 다쳐서 역관으로 서지 못한다면 조선왕에게 큰 책임을 묻겠다고 하여 장현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한다. 18부 82썩에서는 인조에게 소현세자의 자식들의 안부를 묻는 용골대와 이를 통역하는 역관 이장현이 나오는데, 인조의 불안함과 죽음에서 돌아온 장현의 모습이 만주어 장치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18부 S#82. 조선 편진 / 낮<sup>24</sup>

인조 아래 선, 용골대와 장현. 인조, 어좌에 앉았어도 좌불안석, 당당치 못하고 긴장된 표정인데.

용골대: (만주어) 황제 폐하께서 소현세자의 세 아이는 어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장현: (조선말로 인조에게) 소현 세자의 세 아이의 안부를 묻습니다.

인조: (서늘해지며) 역적의 자식에 대해 대국은 어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일은 대국이 관여할 일이 아닌 듯하다 전해라.

용골대: (장현에게 귀엣말 듣더니) (만주어) 역적의 자식이라... 세자빈이 참으로 역모를 꾀했습니까?

장현: 세자빈이 역모를 꾀한 증거가 있습니까?

인조: (손이 떨리고)

장현: (싸늘하게 추궁한다) 세자빈이 역적이 된 증거를... 묻사옵니다.

인조, 장현을 노려본다. 그런 인조를 마주 서늘하게 보는 장현. 인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듯 <연인>에서 쓰인 만주어는 극의 서사적 갈등의

23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3, 김영사, 2023, 323쪽.

24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3, 김영사, 2023, 317~318쪽.

강화와 해소 기능을 수행하며 시대배경과 민중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다양한 캐릭터와 배우들을 통해 표현된 방대한 양의 만주어 대사는 텍스트로 존재하던 사어(死語) 기록이 영상언어를 사용해 다양한 이야기와 입체적인 화면으로 표현된 데에도 의의가 있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하는 것은 시공간을 넘어 이야기를 교감하는 기회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에<sup>25</sup> <연인>의 만주어 자문과 대사 교육은 극의 사실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 5. 맺음말

황진영 작가의 <연인>은 로맨스를 넘어 전쟁을 겪어내는 민중들과 이민족, 왕실과 사대부, 경계에 있던 사람들, 당시 여성들의 지위와 유교사상으로 인해 강요된 절(節)이라는 주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오랑캐라는 존재를 전면 등장시켜 주인공인 길채와 장현이 각각 칸앞에 대면하고, 전쟁과 정치 속에 휘말리는 가운데에서도 ‘살아서 좋았다’라는 주제와 생존의 문제를 철학적 스토리텔링의 뼈대 위에 드러낸다.

드라마는 실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636년부터 효종 10년 1959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여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하고, 그 시기를 재현함으로써 전쟁과 사건, 지역을 의미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동시에 인조 시대를 다루면서 역사 뒤에 묻혀있던 민중들과 포로의 관점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길채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에 서 기존 콘텐츠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입장에서 만주어 대

사의 자문 과정을 소개하고, <연인>에서 만주어 대사가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해결에 기능한 장면들을 살펴보았다. <연인>에서 만주어 대사의 기능은 첫째, 언어능력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서사적 갈등의 강화, 둘째, 우월적인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 부각, 셋째, 만주어 구사를 통해 언어의 친교성을 활용한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인>은 사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언어와 의상, 미술, 소품 등 극 중 역사적 배경이 된 시대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개연성을 높였다. 특히 <연인>에서 적지 않은 분량에 소위 오랑캐라 불리는 등장인물들이 만주어로 연기하며 이질적인 민족의 느낌을 구현해냈다. 아울러 드라마 속 청나라 시대 만주사람들이 어떠한 복색과 언어를 사용했는지와 시청자들에게 오랑캐가 구사하는 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만주어라는 것을 알린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자평한다.

향후 한민족과 북방민족과의 역사를 그린 출판물,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연구자와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기를 바라며, 여러 작품에서 외국어 고증과 활용에 다양한 논의와 함께 중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동양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5 역사 지식의 전달은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의 기록이나 표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표현을 보고 듣고 읽은 사람들이 맺는 관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 김경원 옮김,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47쪽.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

『삼역총해(三譯總解)』

『동문유해(同文類解)』

## 2. 단행본 및 논문

김기봉, 「팩션(faction)으로서의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63, 부산경남사학회, 2007.

양근애,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2020.

우에도 지즈코·아라라기 신조·히라이 가즈코 편, 서재길 옮김,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가려진 피해자들의 역사를 말하다』, 어문학사, 2023.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양상 고찰 1」, 한국극예술연구 38, 한국극예술학회, 2012.

이다운, 「TV드라마의 역사적 인물 소환 전략」, 『인문학연구』 8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이훈 편저, 『만한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정혜경, 「2010년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원 옮김, 『우리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황진영,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대본집』 1·2·3, 김영사, 2023.

## Abstract

## Dramatic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Manchurian lines in the drama &lt;Dearest&gt;

Kim, Kyong-Na | Institute for Mongolian Studies of Dankoo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Author Hwang Jin-young's <Dearest> goes beyond romance and is a story that is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the themes of the people and immigrants going through war, the royal family and noblemen, people on the border, the status of women at the time, and the bowing forced by Confucianism. By fully introducing the existence of barbarians, the main characters, Gil-chaе and Jang-hyeon, each face Khan, and the theme of 'It was good to be alive' and the problem of survival, even while being caught up in war and politics, are revealed on the framework of philosophical storytelling.

The drama secured historical realism by developing the story from 1636, when the Manchu War actually occurred, to 1959, the 10th year of King Hyojong's reign, and implemented a strategy to give meaning to the war, events, and region by reproducing that period. At the same time, it is different from existing content in that it deals with the era of King Injo, looks at the er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and prisoners who were buried behind history, and develops a narrative centered on Gilchaе.

The story of <Dearest> is based on historical sources, and elements of the period that serve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lay, such as language, costumes, art, and props, are appropriately placed to increase plausibility. In particular, in <Dearest>,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characters, so-called barbarians, acted in Manchurian, embodying the feeling of a heterogeneous nation. The drama is said to be significant in showing what kind of clothing and language the Manchurian people used during the Qing Dynasty in the drama, and in informing viewers that the language spoken by the barbarians was Manchurian, not Chinese.

In <Dearest>, the function of Manchurian dialogue can be classified into a strategic function that utilizes the friendly function of language through the use of Manchurian language, first,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narrative conflict using asymmetry of language skills, second, highlighting the heroic aspect of the protagonist using superior foreign language skills, and third, the function of using Manchurian language.

In this paper, I introduced the consultation process of the Manchurian lines as a participant in the production of the drama, and looked at the scenes in <Dearest> where the Manchurian dialogue functioned in the conflict and resolution of the characters.

I hope that the interest of researchers and viewers will increase in publications, movies, and dramas depict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northern peoples, and we hope that various works will have various discussions on the historical research and use of foreign languages.

**Keywords** Drama (Dearest), Manchurian, barbarian, historical drama, Manchurian line, foreign language line

---